

6/28/20

설교 제목: 아브람의 육의 자손 이스마엘 탄생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6 장 1-16 절

-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고 함이라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주신 자손 언약과 땅 언약에 대해 표징을 구하는 아브람에게 햇불 언약식을 체결함으로 언약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에 대한 표징을 받은지 얼마되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람의 나이 86 세 사래의 나이 76 세로 아브람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 거한지 십 일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래는 햇불 언약식이 치러진 후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아들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언약을 받은 날로부터 어언 십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기다리다 못한 사래는 남편 아브람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람도 별 이의없이 사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시며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또 하늘에 못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브람의 나이 85 세 사래의 나이 75 세가 다 되도록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람과 사래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아브람과 사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을 꼼꼼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브람이 집에서 길리운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들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며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굳이 아내 사래의 몸을 통해 아들을 낳지 않더라도 아브람 몸에서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브람과 사래는 사래의 여종 하갈로 하여금 아브람의 자식을 낳게 하여 그를 후사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래의 제안은 당시 관습으로 봐서 그리 영똥한 생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더하여 자신의 희생까지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시대 관습상 문제가 없고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아브람은 사래의 제안을 받았을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고민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언약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서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고민할 필요도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양 착각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아브람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래를 무시했고 사래는 아브람에게 불평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아브람은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무척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람은 하갈에 관해 전권을 사래에게 위임했으며 전권을 위임받은 사래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사래의 학대를 못견딘 하갈은 도망쳐 나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고 함이라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나님은 사래로부터 도망쳐나와 갈 곳 없이 울부짖으며 헤매는 하갈을 찾아 오셔서 주인 사래에게로 돌아가 그녀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임신했으니 낳거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덧붙여 네 씨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하갈은 용기를 내어 다시 주인 사래에게 돌아갔고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반해 태어난 이스마엘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고 예언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대항해 중동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언약을 받고 사명을 수행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행한다면 우리도 아브람과 똑같이 이스마엘을 양산해 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나가실 때 사람의 생각이나 수단이 동원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당신 혼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셔서 천하만민에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시 46: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언약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일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이루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위해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을 동원해 만든 육의 자손입니다.

반면 이삭은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위해 친히 만드신 약속의 자손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위해 제 나름의 방법을 사용하여 얻은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을 대조하여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에게 신앙 생활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갈 4: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 4: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갈 4: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 4: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갈 4: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갈 4: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갈 4:27)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갈 4: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 4: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 4: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 4: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계집종에게서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육의 자녀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자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반면 이삭은 자유자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의 예루살렘  
으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는 것은  
모두 이스마엘을 양산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많이 양산되어도 그것들은 결국은 다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열심을  
내면서 수많은 이스마엘을 양산해 내고 이렇게 생산되어진 이스마엘들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같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열심을 보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보다는 세상의 비전을 붙드는 자,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믿는 자 등등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룰 수도 있지만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결국 이스마엘과 같이 쫓겨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아들이었지만 언약 밖에서 육체를 따라 난 육의 자손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에게도 육의 자손이 있다는 사실은 구원이 혈통적인 유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언약의 자손이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서 무턱대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주차장 봉사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잔뜩 싣고 선교지에 가서 나누어 주고 찬송을 목이 터지게 부르고 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언약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